

무안군, 관광시설 이용 혜택 확대 관광객 유치 총력

유료 운영 시설 지역상품권 환급
여행사 유치 인센티브 혜택 부여
숙박시설 비수기 주중 이용료 반값
‘물맞이 치유의 숲’ 무료 운영 등

무안군이 최근 여행 유행 변화와 위축된 소비 문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객·여행업체·숙박업소·지역 상권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5일 무안군에 따르면 주요 관광지 중 유료로 운영되는 전통생활문화 테마파크, 밀리터리 테마파크의 입장료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액 환급해 주는 ‘관광

지 입장료 지역화폐 드림사업’을 운영 중이다.

드림사업을 통해 관광객에게는 실질적인 무료입장 혜택과 지역에는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통해 무안에 관광객을 유치한 타지역 여행사에 관광객 1인당 7000원(당일), 1만2000원(1박), 2만원(2박)을 지원해 관광 수요를 적극 견인하고 있다.

관광지 숙박시설 혜택 지원도 대폭 확대해 무안 대표 관광지 황토갯벌랜드의 캠핑장 숙박시설을 비수기 주중에 이용

하면 이용료를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방갈로(2인)를 2만5000원, 대형 편백하우스(15인)를 10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낙지공원 노을길야영장 역시 관내에서 여행으로 소비한 금액에 따라 이용료를 5000원~2만원 차등 감면해 주고 있다.

관광객들의 숙박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숙박업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남도숙박할인 BIG 이벤트’도 운영 중이다.

전남관광플랫폼(JN TOUR) 앱을 통해 관내 숙박시설 예약 시 월 1회, 최대 3박,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2만원까지 숙

박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무안 물맞이 치유의 숲’도 올해도 무료로 운영한다.

자연 속에서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는 치유 프로그램은 꾸준히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관련 종사자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마련해 심리적 회복을 돕고 있다.

하영미 관광과장은 “무안군만의 다양한 혜택 지원으로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마련을 위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행언 기자

‘돈·세·고 축제’ 일정 연기
무안군 운남면

무안군 운남면 축제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지열·이장래)는 당초 19~20일 열릴 예정이었던 ‘2025 운남에서 돈·세·고 놀자 축제’를 10월3~4일로 연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관내에서 확산한 구제역으로 인한 차단 조치와 지역 사회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조치다.

이장래 축제추진위원장은 “돈·세·고 놀자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운남면 대표 축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을의 정취 속에서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김지열 운남면장은 “선거의 공정한 운영과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고심 끝에 연기 결정을 내렸다”며 “연기한 만큼 더 완성도 높고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제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돈세고’는 운남면의 특산물인 돼지(돈), 세발나물(세), 고구마(고)를 뜻하며 축제를 통해 지역특산물 상표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무안=김행언 기자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챌린지
강진군보건소

강진군보건소가 오는 27일까지 모바일 걷기앱 ‘워크온’을 이용한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챌린지’를 운영한다.

15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챌린지는 군민이 한마음으로 치매 극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강진군 치매안심센터에서 마련한 행사다.

참여방법은 모바일 걷기 플랫폼인 ‘워크온(Walkon)’ 앱을 통해 진행되며 강진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워크온 앱 가입은 휴대폰 앱스토어에 ‘워크온’을 검색해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강진군 치매 극복 걷기’ 챌린지 참여하기 버튼을 누른 후 기간 내에 걷기를 실천하면 된다.

오는 27일까지 9만8000보 달성을 목표로 하고(1일 최대 8000보까지 인정),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군민에게는 선착순으로 150명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기념품은 오는 28일부터 5월9일까지 강진군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참여와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진군치매안심센터(061-430-529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준호 보건소장은 “치매는 더 이상 남의일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건강한 노후와 치매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완도군, 숲속 야영장 조성
가용리 일원 7.9ha

완도군은 완도읍 가용리 산214-1번지 외 1필지 7.9ha에 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이용객들이 숲에서 머물며 휴양 등 산림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숲속 야영장을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숲속 야영장이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해 야영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입목 벌채 등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 친화적이어야 한다.

현재까지 전국에 조성된 숲속 야영장은 국립 3개소, 공립 10개소, 사립 32개소 총 45개소로 전남도에는 광양 구봉산, 순천 서면 운평에 조성돼 있다.

완도군은 임야로서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완도만의 특색있는 산림휴양시설을 갖추고자 ‘산림치유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산림치유단지에 들어설 숲속 야영장은 전남에서 세 번째로 조성 승인을 받아 4월 중 착공할 예정이다.

숲속 야영장은 오는 12월 준공, 2026년 3월 운영을 목표로 추진한다.

박은재산림휴양과장은 “산림치유단지 내 숲속 야영장을 시작으로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산림 레포츠 시설 등이 잇따라 조성될 예정이다”며 “완도읍 일대가 산림·해양 치유의 명소로 부상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해남군, 농업정책보험 가입 지원
76개 농작물 대상

해남군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작물은 76개 농작물로 가입 기간은 작물별 파종 시기 농협에서 보험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중 ‘벼’ 상품은 21일경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정책보험으로 가입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농가에서는 10%만 보험료를 부담하면 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 수확량만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개선한 상품으로 수확량과 시장가격을 모두 감안해 농가의 수입(소득)하락을 손해로 산정해 보상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농작물재해보험보다 가입단가가 높기 때문에 작물별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 해남=전연수 기자



지난 12일 목포해양경찰 직원들이 신안군 압해읍 장감리 일원 해안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목포해경, 해양 정화 활동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 북항파출소가 지난 12일 신안군 압해읍 장감리 인근 해안에서 대규모 해양 정화 활동 및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15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캠페인에는 북항파출소 경찰관들을 비롯하여 목포 해양재난구조대, 신안군 해양환경

안전협회, 목포시 경애원 학생 등 약 40여명이 참여했다.

1톤 트럭 8대분량의 해양쓰레기 및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이뤄졌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을 현장에서 운영해

구명조끼 착용법 교육, 물놀이 안전수칙 교육,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러한 활동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해양 환경 보호와 안전 의식 제고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체 해양정화활동과 연안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강진군, 농어민 공익수당 2차 추가 신청

신청일 앞당겨 30일까지

강진군이 ‘2025년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의 2차 추가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



15일 강진군에 따르면 당초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여가의 경영 편의와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일정을 앞당겨 시행한다.

이번 추가 신청은 1차 신청기간을 놓친 농어업인을 위한 절차로 신청을 원하는 농어업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강진군은 앞서 1차로 총 8348명에게 1인당 60만원씩 총 50억8000만원 상당의 강진사

랑상품권을 지급했다.

이번 2차 추가 신청을 통해 누락 대상자에 대한 지급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어촌 실현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2차 신청자에게도 동일하게 60만원 상당의 강진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공익수당은 전액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관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2차 신청자의 지급 일정은 추후 개별 안내한다.

강진=김윤복 기자